

「雍固執傳」의 研究

李 石 來*

I. 序

「雍固執傳」은 판소리를前身으로 하고 후에定着된庶民小說이다. 지금까지 이作品에 집중되었던民俗學的研究는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作品의原據로서 발굴된說話들이庶民들의現實認識을 통해서 어떻게作品 속에 포용되고 있는가하는根本的인 문제는 의연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雍固執傳」은 惡德拜金主義者的墮落과生產의庶民의眞實이 충돌하는 현장이고, 이 충돌은超自然的能力이借用됨으로써共同體倫理를 회복, 融和를願望하는庶民의 승리로 귀결되는 결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社會現實의 입각점에서 이作品을 바라볼 때佛教의變身,爭主모티브는雍固執의權力과富力を剝奪하여 그로 하여금屈辱的價值轉落을 위해 차용된 것일뿐佛教의應報主義의力說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興夫傳」도應報說話를 한根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不孝하고佛僧을凌蔑하면罰을 받는다는 것은副次的主題일뿐, 生產의社會意志를 역행한權力과富力에 대한庶民의抗拒가 이作品의 주된主題라 보고 이전제 밑에서「雍固執傳」의諷刺도構造的特性이 분석된 것이다.

II. 變身爭主모티브와作品主題

「雍固執傳」에 대한從來의關心은 그根源說話 발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방면의成果에비해서主題의 과학, 諷刺의樣相, 社會現實과民

*聖心女大 教授(國文學專攻)

衆意識의 소재에 대한 研究는 활발하지 못했다.

이제 根源說話에 관한 지금까지의 研究結果가 이 作品評價에 얼마나 供與하고 있는가가 일차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金東旭教授는 일찍 이에 대해 “佛教說話의 因果觀에서 나온 教訓說話”¹⁾라推斷하고, 그 根源說話로써 ‘쥐의 人間換生說話’일 可能性을 示唆한 바 있고²⁾, 張德順教授는 이 作品의 素材가 될 수 있는 두 資料를 소개했다. 하나는 「쥐說話」이고 하나는 「金·慶爭主說話」다.³⁾ 이후, 金鉉龍教授도 史實 柳游事件을 「雍固執傳」의 根源說話로 들었다.⁴⁾

雍固執이 욕심 많고 不孝하고 佛僧을凌蔑하는 惡行 때문에 困辱을 당하는 結果를 가져왔다는 사실, 이는 順應報受의 佛教의 因果論에 입각해 해석될 수도 있다. 惡因에 의해 惡果를 거둔 結構에선 「興夫傳」도 마찬가지나 그들과는 달리 「雍固執傳」의 佛教性이 문제되는 건 雍固執의 佛僧凌蔑, 학대자의 道術에 의해主人公에 가해진 應報刑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上揭 說話들의 變身 爭主모티브가 이 作品 형성에 作用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原因에 따라 結果가 오는 因果의 原理를 逆用하여 結果를 豫定해 놓고 그럴사한 原因을 粉飾한 作意, 여기에 民衆意識의 所在를 발견할 수 있다.

제비와 박의 神秘가 놀부와 흥부의 價值를 逆轉시켰다 해서 「興夫傳」이 怪奇小說이 아닌 것처럼 「雍固執傳」의 勸懲主義와 因果觀도 民衆의 社會認識이 반영된 다른 次元의 의미를 갖는다. 雍固執의 佛僧凌蔑이 곧 排佛은 아니다. 乞僧虐待는 老母虐待와 함께 一種 惡質的 中錢奴根性이다. 權力과 富力의 支配에서 시달리는 庶民들이 그에 대항하여 고발한 구체적인 罪目이고 惡德일 뿐이다.

人間關係에 融和를 저해하는 社會의 陰影으로써 支配兩班이고 惡德富者인 雍固執의 價值를 否定하는 작업에 人間을 초월한 神異力이 필요한 것이다.

1) 金東旭, 韓國歌謡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p. 406

2) 參考, 上揭書, p. 406

3) 張德順, 雍固執傳과 문갑설화(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出版部, 1970, pp. 201~208

4) 金鉉龍, 「雍固執傳」의 根源說話研究(국어 국문학, 62~63), 서울, 1973, pp. 81~96

佛僧凌蔑이 바로 超自然的 變身모티브의 援用을 위해 強調된 伏線으로 보아 진다.

눌부의 富力은 박 속에서 나온 妖怪로 하여 剥奪당하고 體刑이 가해진다. 超自然的 능력의 借入이란 의미에서는 共通性을 갖고 있다. 「雍固執傳」은 權力과 富力에 대항한 무수한 興夫들의 勝利로 귀결된다. 雍固執의 没落, 虛雍과 眞雍의 爭主, 이 事件의 顛末에 庶民의 意志와 超natural的 능력이 合勢하고 있는 것이다.

雍固執>庶民의 價值不等式에서 雍固執의 價值를 庶民 이하로 低下하기 위해 여기 超自然이 借入된다. 그래서 雍固執<庶民+超自然이 되었다가 그 결과로 雍固執庶民의 관계를 획득한다. 여기에 차용된 超自然이 佛僧의 道術이 있기 때문에 이 作品이 佛教의 色彩를 드러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老母와 乞僧이 그의 利益追求에 무의하고, 供養도 재산의 缺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悅德을 자행하는 惡德 守錢奴 雍固執의 梗塞된 論理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說話」는 며느리가 媳父보다도 취를 더 섭긴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취가 진짜 媳父의 자리를 박탈하려 했다는 이야기로 며느리의 不孝와 지나친 動物施惠가 경계되었고, 「金・慶爭主說話」는結構 유사하나 佛教의 勸懲主義의 색채가 짙다. 이에 대한 張德順教授는 “動機가 意識的이고, 적극성을 띤 排佛行爲요, 그 응징에 나선 存在가 僧侶요, 그 결말을 해결하는 것도 僧侶의 <錫杖>이었다는 것은 이 說話의 佛教의 意義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⁵⁾ 하고, “雍固執傳은 이 두 가지 要素를 줄거리로 하여 <孝>를 意識的으로 내세워 勸善懲惡의 主題를 강조한 作品인 것이다”⁶⁾라 했다. 이는 「雍固執傳」 형성에 원용된 두 原據의 主題이고, 이들 두 主題의 複合은 「雍固執傳」에서 副次의인 것일 뿐 變身・爭主를 모티브로 해서 雍固執을 庶民의 차원으로 低下시킬 수 있었고, 그의 價值가 否定됨으로써 肯定的 共同體倫理를 회복하려는 生產的 民衆의 願望 實現에서 그 主題를 찾을 수 있다.

「兩班傳」에서는 무능한 貧士와 어리석은 賤富와의 콘트라스트를 통해서

5) 張德順, 上揭書, p. 204

6) 上揭書, p. 208

‘土’의 理想과 現實의 단층을 보았고, 「襄稗將傳」과 「烏有蘭傳」에서 假善好色의 兩班벼슬아치와 妓生의 대조에서 身分制의 葛藤을 보았다. 「雍固執傳」은 惡德 兩班守錢奴 雍固執과 庶民이 대립되고 이에 權力과 富力의 支配에서 해방되려는 社會的 葛藤을 볼 수 있다.

雍固執은 고약한 性癖, 고집스런 심술, 悖德한 性格에 「놀부」를 연상케 한 人物이다. 「興夫傳」에 物質的 欲求充足에 따르는 弟兄間의 갈등이 근세 農村社會의 变동을 배경으로 형상화 되었다면, 「雍固執傳」에는 富의 蕪積과 享有過程에서 야기되는 道德의 墮落과 生產的 民衆意志를 저해하는 惡德 守錢奴와 被害庶民間의 대립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

富에 대한 人間欲의 擴大를 李朝後期農業의 발달과 商業資本의 침투에서 찾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이 현상에서 야기된 否定的 人間關係, 善利와 致富를 生活目標로 하는 物欲追求가 生產的인 人間關係를 저해하는 惡德 拜金主義의 출현을 보게 한 것이다. 「雍固執傳」은 富力의 異常肥大와 이에 역행하는 道德의 墮落, 이 갭(Gap)을 의식한 庶民들이 雍固執을 懲罰하여 共同體倫理를 회복하고 經濟的 支配에서 해방되려는 社會意識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점에서 雍固執의 反人間, 反社會性의 告發, 纠正에 초점을 모을 때 이作品의 讽刺는 보편성을 갖는다. 好色의 脆弱點을 풍자하여 上典의 權威를 格下시키고 庶民들의 身分의 高揚을 피한 기타 讽刺小說과는 구분된다.

權力과 富力を 갖고 庶民 앞에 君臨한 雍固執에 대한 규탄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임을 알고 있는 庶民들이 道僧의 神異力を 빙자하여 그의 價値를 劇奪할 수 있었던 점에 그 構造的 特성을 찾을 수 있다. 제비의 조화와 張飛의 勇力を 빌어서만이 興夫와 놀부의 처지를 逆轉시킬 수 있었던 「興夫傳」의 경우와相通한다.

虛雍(학대사의 道術)의 출현은 雍固執의 不德과 拜金主義를剔抉하는데 借用된 超自然的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積德之家必有餘慶 積惡之家必有餘殃’의 徵驗, 이 勸懲主義는 「雍固執傳」이 표방하고 있는 副次的인 主題이고, 主主題는 鄉班이란 백-그라운드를 업고 權力과 富力を 누리는 惡德 守錢奴 雍固執의 價値를 否定하려는 生產

的庶民認識의 반영으로 본다.

III. 雍固執의 퍼어스널리티

“옹경 응연의 웅진풀 웅당촌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응이요 명은 고집이라”⁷⁾

主人公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억지가 심한 고집쟁이를 ‘옹고집’이라 속칭한다. ‘좁고 웅졸하다’는 뜻의 接頭辭 ‘옹’과 ‘고집’의 合成語로 생각된다.主人公의 姓名이 주는 反響과 言戲의 소개가 익살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풍년을 좋아 아니하고 심술이 맹랑하여 매사를 고집으로 하더라” 할 정도로 고약한 性癖을 갖고 있다. 凶年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富力의 誇示이고, 그럴수록 貧者를 수탈하고 富를 蕩積할 수 있었을 것이다. 富를 득점하려는 惡質의 利己主義와 支配主義가 그의 根本의 性格으로 간취된다. 게다가 온갖 豪奢를 다하는 生活에도 八十老母를 朝飯夕粥으로 薄待하는 不孝子다. 병든 老母를 冷突에 누이 있게 한 전悖倫도 불사한 啓吝의 일면이고 家族關係까지도 이러한 利害觀으로 相對立되어 있다.

“팔십당년 우리 모친 오래 살아 쓸데 없는 수즉다육 우리 모친 뉘라서 단명하리”한 그의 不孝가 近世의 人間關係에 親和를喪失한 陰影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그의 富는 世襲된 것으로 짐작된다. 地主로서 혹은 商業資本의 發展에 따라 債權行事로 더욱 增大되었을 것이란 점과 射亭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저 건너 죄서방에게 작전 열냥 가져온가?”라고 하는 雍固執의 말에서도 알 수 있고, 豐年을 싫어한 그의 內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座首인 그의 社會的 身分은 兩班이다. 官家에 나가 戸籍을 신고한 虛雍의 말을 통해서 詳考된다.

“자아풀 김동내 과정시에 민의 아비가 좌수로 거행 하을 때에 백성을 액흘한 풍으로 하여금 연호잡역을 사감하였기로 경내 유명하오니, 웅돌면 제일호 유학의 응고집이라, 고집의 연이 삼십 칠이요, 부 학생이 웅송이오니 절충장군이 응고 조는 상이오나 오위장하옵고….”

座首는 鄉廳의 우두머리다. 鄉廳은 본시 守令을 보좌하고 鄉吏를 규찰하

7) 鄭炳昱 校註, 雍固執傳, 新丘文化社, 1974.

는 일을 맡은 곳이고, 地方兩班勢力의 本據와도 같은 구실을 하고 있었다.⁸⁾ 鄉吏는 地方官廳의 實務者로 鄉民에 君臨하면서 私腹을 채우는 不正行為가 자행되었고 이에 官長이 結託된 事例도 허다했다⁹⁾하니 이런 狀況에서 鄉吏와 守令의 中間에서 不正을 掩護하고 富를 集積할 수 있었기 때문에 稀民과 그들과의 갈등 대립은 倍增된 결과로 나타난다.

일조의 별감이 되어 미구에 좌수의 오르니 나가면 향역(鄉役)에 앓고 관리 뜰앞의 결하여 빼고 들어는 넝감을 대하여 통인이 섬앞의 빼셨이니 전일 쌀악이죽을 먹다가 오늘 육밥을 먹으며 전일 걸어다니다가 이제 살찐 말을 타며 너(女妓)와서 자고 재워 문을 지키고 깃브면 환상(遺上)을 더 주고 노하던 머맞고 손이 오면 술을 부으며 입이 말으면 차를 올리고 전일 가치 사과던 빗과 눈흘겨 보던 상인(常人)이 앞의 업드여 젓사와하며 위풍이 일경에 진동하고 선물 들이는 것이 이음달았으니 이아니 대장부 사업이니잇가.”¹⁰⁾

座首와 鄉民間 事情을 설명해 주는 「要路院夜話記」의 한 대목이다.

雍固執은 支配官員과 收奪富人の 복합된 敵對感으로 雍民의 憎惡와 질시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의 惡德의 羅列과 諷刺的誇張은 「興天傳」의 놀부의 경우가 연상된다. 乞僧에 대한 處待로 그의 啓齒惡德의 일면이다 “너같은 완승놈이 거짓불도 침탁하고 남의 전곡 달라하니 너같은 놈 그거두라”雍固執의 道僧 학대사에 대한 面前 謔謗은 통렬하다. 시주를 비는 학대사에게雍固執이

“가소롭다 네말이여 천생만민 마련할 제 부귀빈천 유무자손 복불복을 분별하여 내었거늘 네 말대로 하려기면 가난할 이 뉘 있으며 무자할 이 뉘 있으리 진속에 일렀으되 ‘인증말은 중이라’ 너의 마음 고이하여 부모은혜 배반하고 삭발위승 부처제자 되어 아미타불 거짓공부 어른 보면 동냥달라, 아이 보면 가자하고, 불충불효 너의 행실 내 이미 알았으니 동냥 주어 무엇하리”

不孝莫大한 그가 道僧의 不忠不孝를 叱罵하는 낌센스다.

학대사의雍固執에 대한 對應은 다분히 應報刑이다. 귀를 뚫고 태장 삽입으로 맹치하여 그어내치는雍固執의 폭행도 결국 폭행으로 돌려받은 결과가

8) 參考이하 本文引用은 이에 의함,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1. p. 208

9) 參考, 洪淳昶, 朝鮮王朝의 社會身分의 構造에 對한 考察(東洋文化, 8. 大邱, 1968)

10) 朴斗世, 要路院夜話記(李秉岐 選解, 乙酉文化社, 1958) pp. 13~14

되었다. 학대사는 雍固執의 肉體的 外觀을 戲畫하면서 撥撥하고 있다.

“좌수님 상을 살피오니, 눈썹이 길고 미간이 넓었으니 성세는 요족하나 누당이 곤하시니 차손이 부족하고 면상이 좁았으니 남의 말은 아니들고, 수족이 작았으니 오사도 할 듯하고, 말년에 상한병을 얻어 고생하다 죽사리다”

雍固執은 온갖 惡德 惡行이 응집된 인물 權力과 富力에 지배당해온 庶民들의 儲斥의 대상이다. 그는 啓齋의 惡德에 “호색하는 고집”的 弱點도 갖고 있는 위인이다. 社會發展과 共同體의 融和에 反한 雍固執型의 경색성이 폭로되고 近世的 開化가 불러온 人間의 好色과 지나친 金錢欲이 풍자되고 있다.

IV. 학 대 사

「襄裨將傳」의 愛娘은 襄裨將의 價值低下에 被害庶民을 대신한 인물이다. 결국 愛娘에 의해서 支配階層의 好色偽善이 폭로, 卑俗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愛娘은 惡戲를 통해서 自己價值를 高揚하려는 補將을 망신시킨다. 「烏有蘭傳」의 烏有蘭도 愛娘과 마찬가지다. 上典의 價值를 否定하고 肯定的人間關係를 암시하고 있는 그들의 役割이 공통성을 갖는다. 그들은 嫉生이란 身分을 가지고 兩班 벼슬아치와 相對立된 자리에서 好色이란 脆弱點을 폭로하는데 요긴한 利點을 갖고 있기 때문에 使役된 인물이다. 이 점은 「雍固執傳」에서 雍固執으로부터 虧待받은 학대사와 諸僧 사이에서도 報復의 방법으로 거론되었다.

“그러하으면 신미산 여우되어 채의단장 곱게 입고 호색하는 고집의 품에 누워 단순호치 반개하여 좋은 말로 옹고집을 속일 적에, 침은 본디 월궁선녀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모르더니, 산신이 지시하여 좌수님과 연분있다 하옵기로 찾아 왔나이다. 하며 온갖 교태 내보이면 옹가 필경 대혹하여 등치며 배 만지며 온갖 회통 하다가 축풍상한 나서 죽게 하옵소서”

그러나 학대사는 이 方法을 채택하지 않았다.

「興夫傳」에선 惡德富者 놀부를 파멸케 하고 善人 興夫의 貧弱을 救濟하기 위해 超自然的 能力이 개입되고 있다. 제비의 出現과 박의 조화가 그것이

다. 庶民들은 그들 願望의 實現이 不可能한 現實의 限界를 알고 있었다. ‘박’의 조화만이 惡한 富者 놀부와 善한 貧弱者 興夫의 價值를 轉倒시킬 수 있었고, 家族倫理의 回復, 共同體의 融和를 실현하는데 三國의 將帥 張飛까지 등장한다. 놀부가 탄 마지막 박에서 나온 張飛가

“마조 특고 보니 혼 장晦 나오되 얼풀은 검고 구례나로출 거스리고 골허눈을 부릅쓰고 봉그린 투구의 뚱닌갑을 날고 장팔소모를 들고 낙데로며 이놈 놀부야 네 세상의 누서 부모의게 불효하고 형매불화할 쑔더러 여리가지 죄악이 만키로 텰되 무심치 아니하소 날로 하여곰 너를 죽여 업시하라 허시기로 았거니와...¹¹⁾

封建秩序의 장벽, 權力과 富力의支配下에서 탈출하려는庶民들이 아직도超自然的 魔術主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中世의 殘影을 볼 수 있다. 「雍固執傳」의 학대사도 惡德富者 대庶民의 관계에서 借用된超自然的 능력이라는 점에서 「興夫傳」의 박과 張飛에 대비된다.

그들은雍固執의 價值를 적극적으로 否定하고 그를 剔抉하기 위해 權力과 富力を 制壓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대사의 道術로는雍固執을 <지옥에 엄수하여 영불출세 하게> 할 수도 있고, 보라매가 되어 <옹가 대가리를 두 발로 더빡 치고 두 눈을 익은 한오수박 파듯> 할 수도 있다. 美人으로 단장하고 그를 <대혹하여 등치며 배만지며 온갖 희롱하다가 촉풍상한 나서 죽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庶民들은雍固執의 惡德을 폭로하고 그를懲罰함으로써共同體의 融和를 保全하고 富力과 權力의支配에서 해방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虛雍을 만들어眞雍을 괴롭히는 惡戲를 채택한 것이다. 虛雍에 밀려난眞雍은一時家父長의 權利와 막대한 富權을 박탈당하고 乞食流浪하는 낮은價値로 전락하고 만다.

쫓겨난雍固執이 流浪하다 山中에서 만난 道士에게 哀乞하니 “천지간에 몹쓸놈아 언제도 팔십당년 뜩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놓멸할까? 너같은 몹쓸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가공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 고로 방송하나니 돌아가 개파천선하라”

道士의 입을 빌린庶民의 懲戒다. 학대사는庶民 앞에서驕傲와 菲박으로

11) 金東旭編, 古小說板刻本全集 3卷 所收) p. 586.

임한 富者의 不倫惡德을 除去하기 위해 借用된 超自然的 존재이고, 虛雍은 眞雍의 價值低下에 학대사가 假說한 惡戲의 下手役이다.

학대사는 막대한 權力과 富力에 對立된 貧弱한 庶民의 편에 들어 庶民의 승리로 이끈 제 3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V. 「雍固執傳」의 讽刺構造

「雍固執傳」의 등장인물은 雍固執(眞雍)의 夫妻, 老母, 자식과 여느니, 많은 奴婢, 金別監, 守令과 官家諸屬에다 학대사와 虛雍 등이다. 주로 雍固執의 惡과 庶民의 善이 콘트라스트되고, 虛雍의 차용으로 雍固執의 價值가 否定되면서 생겨나는 웃음은 그의 反社會的 惡德守錢奴에 대한 庶民의 有罪宣言으로 해석될 성질이다.

「雍固執傳」의 讽刺는 虛雍이 철저하게 雍固執으로錯覺될 수 있었기 때문에 眞雍의 價值否定이 가능케 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真假를 혼돈하리만큼 완벽한 학대사의 道術의 ‘흉내’, 아니 그의 變身術이 滑稽感을 일으킨 것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벨그송’(M. Bergson)의 理論에 눈을 돌릴 필요가 생긴다.

他人의 見語나 行動을 흉내낼 때 우스운 것은 “자기 앞에서 지금 自動的으로 움직이는 한낱 機械를 보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生命이 없이 다만 生命을 모방한 自動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生命이 있는 것은 결코 두 번 行動을 되풀이하지 않는 原理에서 그 言語나 行動을 生命에서 分離하여 生命없는 것으로 바꿔 버리는 데서 滑稽感은 생긴다고 했다.¹²⁾ 그의 ‘生命의 理論’에 입각하여 虛雍의 眞雍行勢에서 야기되는 웃음의 性格이 설명될 수 있을련지 모른다. 그러나 虚雍의 變身은 단순한 ‘生命의 기계화’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학대사의 道術은 人間을 초월한 능력의 발현이라 그 이상이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고 기대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그의 도술이 人間能力의 한계를 넘지 않은 소박한 것이라면 真假를 혼돈한 주위의 人物들은 放心者로 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12) M. Bergson, LE RIRE(廣瀬哲士譯, 笑の哲學) 東京堂, 1953, pp. 37~41.

錯覺은 그들의 放心 때문만은 아니다. “이옹 저옹이 같은지라 양옹이 상투하니 백운심처 처사 찾기는 쉬울지나 백주당상 차방중에 우리대 좌수님은 찾을 가망 전혀 없어” 草人 일곱으로 洪吉童을 만들어 놓은 道術에 親父도 正洪吉童을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의 眞虛雍 혼돈도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

“언어 동정 이목구비 두 좌수 똑같으니” 그야말로 誰知鳥之雌雄의 처지나 ‘도포자락에 남은 불뚱구멍’으로도 판별할 수 없었던 香丹, ‘頭上의 금’으로는 물론, 白髮이 되려 雙雍의 머리로 옮겨진 조화에 머느리도 雙雍을 眞雍으로 알았고, 첫날밤의 內密한 情事を 들춰

“내 말 자세 들어 보소. 우리 처음 만나 새방 차려 동숙할 제 동품하자하니 팔연 불용하읍기에, 내 다시 개유할 제 좋은 말로 자네를 호될 적에, 이같이 어진 밤은 백년일득 뿐인지라, 어찌 서로 허송할까 하니 그제야 서로 동품하였으니, 그런 일을 생각하여 진위를 분별하소”

的實한 雙雍의 말에 雙雍을 實雍으로 착각한 아내, 이들의 착각을 저 風車를 巨人으로, 羊의 무리를 軍隊로 착각한 동…키호데의 착각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理想에 사로잡힌 자가 現實을 바라보는 否定的인 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奴婢와 家族, 金別監의 放心者도 아니고 그들의 착각으로 「雍固執傳」의 웃음이 설명될 수도 없다.

官家の 판결은 문제가 된다. 眞雍의 戶籍陳述은 서두에서 沮止하고 雙雍의 戶籍을 詳考한 偏頗性이 그렇거니와, 官長의 錯覺과 경솔한 誤判이 諷刺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웃음의 대상은 착각한 사람이 아니라 錯覺으로 인해서 일어난 진짜 雍固執의 價值低下가 우스운 것이다.

「景文大王의 귀 이야기」를 예로 든다.

“王이 位에 오르자 王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 당나귀의 귀와 같았다. 王后와 宮들은 아지 못했고 다만 懷頭匠 한사람만이 그걸 알고 있었으나, 平生에 發說하지 않다가 죽을 때 道林寺 竹林寺 無人處에 들어가 대밭을 향해 “우리 임금의 귀는 나 귀의 귀와 같다”고 외쳤다. 그 후 바람이 불면 대숲에서 그 소리가 났다. 王이 싫어 대를 베어 버리고 山茱萸을 심었더니 그제는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고만 했다.¹³⁾

13) 三國遺事, 卷 2, 四十八 景文大王.

이 이야기가 주는 몇 가지 示唆에 문에 곧잘 例證한 說話다. 王의 귀가 나 귀의 귀와 같았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혹은 樓頭匠의 錯覺如否가 문제될 수는 없다. 다만 樓頭匠은 이 사실을 발설하면 不敬罪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죽을 때 無人竹林에서 외치고 만 것이다. 이 不敬罪는 樓頭匠의 발설로 높은 價值의 君主가 낮은 價值領域의 微物인 나귀에 결부됨으로써 君主의 價值低下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 때 竹林에서 나는 ‘왕의 귀는 나귀의 귀와 같다’는 소리를 미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雍固執의 價值低下가 王의 價值가 차각된 나귀의 수준으로低下되는構造에 置換되지는 않는다. A>B에서 A가 B의 수준으로低下되어 A=B가 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虛雍이 實雍과 차각되었기 때문에 虛雍이 實雍의 價值를 剝奪하여 實雍으로 하여금 낮은 價值次元으로 轉落하게 한 것이다.

雍固執의 아내는 虛雍의 출현으로 家父長秩序가 동요되고 있을 때 이미 實雍에 대한 不吉한 조짐을 예견하고 있었다.

“액고 액고, 이게 웬 말이냐? 너의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팔십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없을소냐? 자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하리”

그의 不孝, 佛僧凌蔑로 받는 친벌은 人力으로는 不可抗力이라는 것이다. 虚雍의 출현으로 모든 權利와 그의 社會的 價值를 剝奪당한 雍固執은 大根三十度에 途出境外, 乞食 流浪하게 됨으로써 權力과 富力を 가진 왕년의 座首는 밀바닥 人生으로 價值가 零化되고 만다.

이 결과는 超自然的 능력을 借用한 索民들의 懑烈한 審判이고, 雍固執의 惡德에 대한 有罪宣言이다. 그리고 雍固執의 價值低下에 결정적인 役割者, 학대사도 온갖 權威와 價值가 否定되는 판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佛道凌蔑이 雍固執의 주요 罪目으로 제기되어 있으나 이는 학대사의 能力を 차용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고, 攻擊의 촛점은 그의 惡德拜金主義에 있다. 不孝, 唐僧도 富를 지키기 위한 守錢奴의 根性이다. 「雍固執傳」의 飄刺는 雍固執의 富가 集積될수록 貧困과支配에서 시달려야하는 索民들이 그들의 횡포에 대한 制動을 건 저항의 표현인 점에 의미를 갖는다.

중을 ‘人中末’이라든가 ‘煩僧’이라 하여 학대사를 비방하고 특히 乞僧을 卑俗視하고 있을 뿐, 佛教凌蔑이 그 이상 구체화 되지는 않았다. 月出峯 亂 암사의 道師가 보면 학대사는 雍固執으로부터 施助는 고사하고 당한 比辱暴言이 다 雍固執의 惡德의 誇張이고, 비록 妖怪草人(虛雍) 일지라도 학대사의 道術에 의해 조종되는 한 그의 意志이다.

超自然이 人間的인 弱點을 드러내는 것 역시 그 卑俗化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렁처럼 날이 지울매 허옹가 실옹가의 아내 테리고 종야 언어수작 하다가 원앙
금침 펼쳐놓고 동침하여 누었으니 양인심사 깊은 정에 좋은 마음 측량없다. 이같이
즐기다가 잠깐 잠을 들어 한 꿈을 얻으니 하늘에서 허수아비 무수히 떨어져 뵈이거
늘, 문득 깨닫으니 남가일몽이라. 허옹가더라 봉사를 이르니 허옹가 하는 말이 그
러할시 분명하면 아마도 익태할 듯하나 꿈과 같을진대 때 허수아비 낭을 듯하네 그
려하나 내두를 보리라”

眞雍의 아내와 虛雍間 同寢歡樂, 결국 ‘도야지 새끼 낭듯’ 무수히 자식을
낳았다. 이는 超自然이 人間欲의 次元으로 價值低下되는 현상이고 佛僧까지
도 諷刺의 대상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 모든 낡은 價值를 否定하는
庶民意識으로 이해된다.

雍固執의 價值剝奪과 이 결과로 획득한庶民들의 優越感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權力과 富力의 支野에서 해방되고 守錢, 好色 등 梗塞된 人間關係에 融和를 꾀하는 肯定的庶民願望의 실현을 위해 權力과 富의 價值가 否定되고, 官長의 횡포, 佛僧까지도 그 權威가喪失되고 있다.

VII. 結

「雍固執傳」은 ‘취說話’ ‘金·慶爭主說話’ 혹은 實史 柳游事件 등의 變身·爭主모티브를 複合하여 이에庶民의 現實認識을 바탕으로 富力의 支配에서 해방을 도모하는 社會的 葛藤의 형상화로 보았고, 佛教의 應報主義는 이作品의 副次的 主題로 간주했다. 「雍固執傳」의 主題를 佛教의 應報主義에서 찾던 종래의 관점은 雍固執의 佛僧凌蔑을 因으로 하고 事件의 顛末에 佛僧의 道術이介入되어 惡果를 불러온 結構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

나 雍固執의 不孝와 佛僧凌蔑은 그의 惡質的 守錢奴根性이고, 讀者로 하여금 共感을 얻을 수 있는 罪目에 불과하다.

雍固執은 鄉班이란 백—그라운드를 가진 鄉廳의 座首다. 좌수는 守令과 鄉吏의 중간에서 그들의 不正을 掩護하고 교묘히 鄉民에 君臨한 존재다. 그의 富가 異常肥大해감에 따라 貧弱化를 모면할 수 없었던 零細庶民이 그의 權力과 富力의 支配에서 해방되려는 生產的庶民意志의 발현이고, 李朝末農村의 社會經濟構造의 变동으로 야기된 惡德 拜賤主義와 道德의 墮落을 戒戒하여 共同體倫理의 회복을 꾀한庶民願望의 實現으로 이 作品을 評價한다.

「雍固執傳」의 諷刺目的은 惡德 守錢奴와 善良한 被支配庶民이 대비되고, 이에 雍固執의 價值가 否定됨으로써 성취된다.

그의 높은 價值를 剝奪, 低下하는데庶民들의 現實的 힘의 한계가 있었다 이 작업에 借用된 超自然, 이것이 학대사의 道行(虛雍)이다. 虛自然의 능력을 빌어서만이 그의 價值低下가 가능했던 것이다. 虛雍의 출현으로 真雍의 모든 價值는 剝奪되고, 流浪의 신세로 전락됨으로써 밀바닥庶民의 자리로 低下된 형식에서 특이한 諷刺構造는 찾아진다.

虛雍이 雍固執의 家父長權을 박탈하고 그의 現實과 野合함으로써 생긴 超自然의 卑俗化도 놓쳐서는 안 될 價值低下의 한 양상이다.